

# 행복주택으로 갤러리로...도심 빈집 변신 시작

목포시 빈집 활용 프로젝트 본격화  
총 1777동...목원·유달동에 절반  
독거노인 함께 생활 행복주택 운영  
제1호 빈집 갤러리 오는 17일 개장



목포시가 원도심 지역의 빈집을 지역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빈집 갤러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근대역사관 인근에 위치한 전형적인 도시점포 주택(등록문화재 제718-7호).

목포시가 넘쳐나는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목포시는 올해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 원년으로 삼고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어르신 한울타리 행복주택'과 '빈집 갤러리' 등 마중물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목포시의 빈집 현황(3월말 현재)에 따르면 관내 빈집은 총 1777동으로, 목원동(442동)과 유달동(421동)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용당1동(201동), 만호동(180동), 죽교동(126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집이 늘어나면서 붕괴위험 사고와 도시환경문제(유기동물, 쓰레기, 방역)로 상습민원발생은 물론 주거 생활여건이 악화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게 목포시의 복안이다.

이 가운데 핵심이 '어르신 한울타리 행복주택'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가족 기능 약화로 고독사·치매·우울증 등에 노출된 독거노인 3~4명을 집단화해서 서로 어울려 생활하는 정(情)이 있는 공동 생활환경

을 마련하는 것으로, 김 시장이 내놓은 복지-건강 분야 공약 가운데 제1순위 사업이다.

목포시는 2022년까지 원도심 지역에 총 10개소의 한울타리 행복주택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소당 리모델링 비용 2000만원과 운영비 각 800만원 등 총 2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투입된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지난 3월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청한 3개동 가운데 현장 실사를 거쳐 우선 1개소를 선정하고 6월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한 뒤 7월 목포시의회 협의회와 조례를 제정한 뒤 9월부터 방문 진료 등 프로그램과 연계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오형순 목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 생활공동체 환경 조성 및 다양한 맞춤 서비스 지

원으로 고령화로 발생하는 독거노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원도심 지역의 빈집을 지역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빈집 갤러리'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목포시는 우선 시범 사업으로 근대역사관 인근(목포시 변화로 26)에 위치한 상점(등록문화재 제 718-7호)을 무상 임대, 이곳에 제1호 빈집 갤러리를 17일 개장해 지역작가와 연계한 작품 전시와 관객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 건물은 근대기 동양척식주식회사 주변 시가지의 흔적과 기억을 담고 있고 해방 이후 상업 경제 공간 요소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도시점포주택 건축물이다.

도시재생과는 지난 3월부터 활용 가능한 빈 집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건물 안전관리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빈집 활용에 대한 반응을 지켜본 뒤 오는 하반기에 빈집 갤러리 2호, 3호점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최대 5호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을 예술 창작공간이나 청년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사업도 추진된다.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빈집 360동을 대상으로 추진될 이 사업에는 총 60억원(국비 60%, 자부담 40%)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국토교통부에 내년도 사업비 12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 목포 관광객 급증 을 500만명 돌파 무난

'낭만 항구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전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목포시 주요 관광지점 관광객은 2017년(259만 명) 대비 50% 증가한 388만명이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관광 거점별로는 지난해 평화광장 바다분수가 41만명, 북항 노을전망대는 34만명, 유달산 둘레길은 19만명이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한 해 목포를 찾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들러본 곳은 갯바위 보행교 42만명, 춤추는 바다분수 40만명, 자연사박물관 36만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요 관광 거점의 관광객이 급증한 이유는 민선 7기 목포시가 '낭만항구 목포'란 도시 슬로건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맛의 도시 브랜드화,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다양하고 역동적인 관광정책 추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목포시가 자체 집계한 올해 1분기 주요 관광지점 관광객 통계를 보면 근대역사관 1·2관을 찾은 관광객이 4만7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바다분수는 9만108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3% 늘었다.

이 밖에 연희대수퍼는 5만6408명, 유달산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1만1492명, 가톨릭 목포성지 1만1434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인근에 만남의 광장

7700㎡ 규모...목포시 48억원 투입

목포 고하도가 새로운 관광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고하도에 '만남의 광장' 조성이 추진된다.

목포시에 따르면 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주차장 인근인 달동 932번지 일원에 7700㎡ 규모의 광장이 조성된다.

만남의 광장에는 분수, 광장바다 트리아트, 쉼터, 버스킹 공연장(야외 소무대) 등이 들어서며 사업비는 총 48억(국비 20억, 시비 2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 중 사유지 매입비용은 약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관광자원개발사업(균특 회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 토지 매입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목포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고하도 목화정원과 체험관 사업이 오는 10월쯤 마무리되고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도 오는 10월 개통될 예정이다. 여기에 국립 호남권 생

물자원관도 비슷한 시기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따라 국비 등 400억 원이 투입돼 고하도에 이순신 역사유적공원도 조성된다.

이처럼 해상케이블카,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목화 정원 등 관광인프라가 속속 들어서면 관광·문화 복합의 편익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추진 배경이다.

이와 관련 김중식 목포시장은 "고하도에 관광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리조트와 펜션, 워터파크 등 민간자본으로 휴양시설을 유치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면서 "앞으로 고하도를 역사문화관광과 힐링 해양관광 분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 관광과는 우선 문체부에 내년도 시설계획에 필요한 용역비 3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근대역사문화 공간 일대를 찾는 외지인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차도와 인도 구분이 안 돼 있는 등 보행환경이 열악해 목포시가 이달 초 용역비 1억원을 들여 보행환경 개선 용역을 발주했다.

##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보행환경 개선 착수

시 조성 용역 발주...사람중심 도로 만들고, 거리마다 특성 부여

목포시가 올해 전국적인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근대역사문화 공간 사업 대상지 내 보행환경 개선에 착수했다.

이 곳은 연초 불거진 '손해원 이슈'로 외지인들의 방문이 급증했지만 차도와 인도 구분이 안 돼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목포시는 만호동 일대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 차량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역비 1억원을 들여 '목포 근대문화사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용역을 발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사업 구역은 목포시 유달동·만호동 일원(근대역사관 2관 일대) 9만㎡와 산정동 일원(옛 호남약국 일대) 5400㎡ 등이다.

이번 사업은 보행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람중심의

도로를 만드는 게 핵심골자다.

이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지구 선정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교통정문화 기법' 등을 적용하고, '근대문화사길' 개성과 상징성 있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거리마다 특성을 부여한다는 게 목포시의 계획이다.

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야간조명 계획 ▲거리의 통합디자인에 부합하는 휴게 및 녹지 공간 조성 ▲일방통행 실시 및 지중화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컨셉과 스토리텔링 구성을 통한 지역 특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호 목포시 도시건설국장은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관광객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관광산업과 주변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SolutionPartner
77 창사67주년  
광주일보

## 내일을 만드는 화학

흠집도 안 날만큼 강하게  
 하지만 깃털처럼 가볍게  
 모두 담은 것은 옥심일까  
 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일까  
 가능해질 때까지 꿈을 꾸자  
 꿈의 소재를 만들자  
 모든 것의 기초가 될  
 내일의 바탕을 만들자

기술을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진화시키는 **소재 솔루션**  
 LG화학은 금속을 대체할 만큼 강하면서도 가벼운 친환경적인 꿈의 플라스틱과  
 최첨단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여 인류의 미래를 위한 소재를 만듭니다

LG 화학